

'통합교육'하면 떠오르는 생각?

- 1. 통합교육은 통합아동만을 위한 교육?
- 2. 준비된 통합에 대한 고민?
- 3. 장애아동은 특수기관이 더 도움되지않을까?
- 4.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 5. 무엇이 궁금한지 모르겠다.

1. 통합교육의 원리

모든 인간은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최대한의 교육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데 통합의 원리가 있다.

통합교육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차별 받지 않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일상과 삶 속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에서-

2. 통합교육의 의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기 아이만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편견 없는 사고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

- 「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에서-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말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이다.

- 정병호 교수의 글 중에서-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열린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람에게 대해 신뢰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갑니다.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에서-

3. 통합교육의 당위성

- 1) 철학적 당위성
- 2) 법적 당위성
- 3) 사회적 윤리적 당위성
- 4) 교육적 당위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합교육의 혜택

- 1) 장애 유아
 - 2) 비장애 유아
 - 3) 장애 유아 부모
 - 4) 비장애 유아 부모
 - 5)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효과
5. 공동육아 통합교육의 원칙

6. 장애아동이 아닌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공동육아는 장애아동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라고 부른다.

장애아동이 아닌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송경선, 2008).

7. 공동육아 교육과정

"공동육아의 교육 실천들은 네가지 축 사이에서 교차구성 "

▪ 생태교육(생태적 능력의 획득)

- 나들이, 먹거리, 텃밭가꾸기 등
- 자연친화에서 출발, 일상의 문화로 자리매김

▪ 생활문화교육(기본적인 문화,민속의 능력)

- 대표적인 교육활동
- 자발적인 놀이, 전래놀이, 세시절기 교육
- 옛이야기 들려주기, 표현활동, 기본생활습관

▪ 관계교육(소통의 능력)

- 중요한 교육적 요소: 자연/인간, 다양한 인간관계
- 별명/반말문화, 모듬활동, 회의/마실문화, 날적이

▪ 통합교육(차이와 연대 능력)

- 광범위한 의미의 통합(차이의 공존모색)
- 성/나이/장애/ 계층/ 문화통합의 교육
- 관계교육과 밀착

8. 공동육아 터전의 하루 흐름

- 공동육아는 하루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9. 통합교육의 실제

1) 통합아동을 대할 때 교사가 가지는 어려움

▪ 통합아동을 대할 때의 어려움은 일반 아동을 대할 때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통합아동보다 통합아동 아파, 해당방 일반아동 아파, 같이 생활하는 교사, 교사회에 대해 가지는 어려움이 더 크다(박정화, 2009).

2) 교사간 협력의 어려움

▪ 통합방을 할때 교사가 가지는 어려움

-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방안을 뛰어다녀서 모듬이나 활동을 방해하던 00도, 요구가 많던 00엄마도 아니었다. 늘, 모든 것을 00엄마탓, 조합탓, 지원인력부족으로만 돌리는그 교사의 안일함과 무사태평이 나를 더 답답하게 하였다. - (공동담임을 했던 교사의 소감문중)

1) A어린이집 통합방의 역사

- 2000년

: 설립이념 실천을 위한 특별 규정에 대한 정관을 수립 (정관 참조)

: 윤이(전형적 자폐), 정이(중도뇌성마비 중복장애)의 등원

- 2001년 산들 개원

: 9월 정이네 탈퇴

: 조합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통합교육 역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큰 도전이 된 셈

- 2003년

: 윤이의 졸업

: 설립이념 실천을 위한 특별 규정에 대한 정관 중 등원 가능 장애 아동의 비율을 10%로 조정

- 2005년

: 5월 은지(발달 지연, 졸업) 등원

: 7월 전체 조합원 교육으로 통합교육이 있었음

: 2년여의 통합교육 공백 기간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2006년 통합방 개설

: 1월부터 카페에 “통합방”이라는 메뉴를 개설

: 3월 민우(아스퍼거, 2008년 졸업) 등원. 메뉴명을 ‘통합방’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로 변경

: 4월 첫 통합방 모임 가짐

: 6월 통합교육과 관련한 전체 조합원 간담회가 있었음

: 7월 통합 페다 파랑새로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전체 조합원 교육이 있었음

: 11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부모 교육 실시

- 2007년

: 2월 통합 페다 달님이 매주 한 번씩 오시기로 함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 달에 두 번 오시기로 했고, 2008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시기로 함)

: 냉이(현 교육이사)를 통합방장으로 선출

: 5월 조합원 모꼬지에서 반편견 인형극 <하마 노노> 공연

: 6월부터 1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 실시

: 10월 윤호(발달장애, 산들내음방) 등원

- 2008년

- : 3월 지수(발달장애, 산들내음방) 등원
- : 매달 통합방모임 운영(통합방 전체방장/ 각방 통합방/ 교사회 4인 참석)
- : IEP(개별화교육계획안)관련 회의 시작함
- : 2월 통합 페다 달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심
- : PECS(그림자료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자료 구입해서 활용함(배혜영선생님 강좌들음)

- 2009년

- : 3월 윤지(지적장애(다운증후군), 현 다래방) 등원
- : 매달 통합방모임 운영(통합방 전체방장/ 각방 통합방/ 교사회 4인 참석)
- : 배혜영선생님 3차례 지원나오심(무료).
- : STAR, AEPS에 의한 현행수준 파악함. IEP(개별화교육계획안)관련 회의함.

- 2010년

- : 통합교사 퇴직
- : 또다른 통합교사 채용
- : 3월 지예(5세,자폐)
철수(6세,언어발달장애) 등원
- : IEP회의 진행

2011년

- : IEP회의 계획대로 진행됨
- : 통합교사 퇴직

2012년

- : 지속적인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 (통합방장 중심)

☞ 2013년

- : 3월 태준, 해웅(5세)등원
- : 매달 통합방모임
- : 각 방모임시 통합방장 순회교육 4회(찾아가는 통합교육)
- : 6, 7세 대상 반편견교육 3회 진행(통합방장)
- : IEP회의 진행함(현행수준: 포테이지활용)
- : 반편견인형극 진행(내귀는 짹짹)

☞ 2014년

- : 3월 인희(7세,청각장애) 등원
- : 통합방장 교체
- : 매달 통합방모임 진행
- : 각 방모임시 통합방장 순회교육 3회(찾아가는 통합교육)
- : 6, 7세 대상 반편견교육 월 1회 진행(소금별)
- : IEP회의 진행(현행수준: 캐롤라이나교육진단)
- : 마을사업으로 반편견인형극 확대 진행(내귀는 짹짹)

☞ 2015년

- : 3월 인규(5세,발달장애) 등원

- : 통합방장 교체
- : 매달 통합방모임 진행
- : 9월 인규 탈퇴
- : 6, 7세 대상 반편견교육 진행(교사회)
- : IEP회의 진행(현행수준: 캐롤라이나교육진단)

▣ **공동육아 (장애)통합교육 발표자료 별첨자료**

I. 용어해설

1. PECS

(1) PECS 소개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의 하나인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PECS) (Bondy & Frost, 1994)방법은 자폐아동이 시각자료를 교환하여서 의사소통 하는 방법이다. PECS방법은 1990년 이후 Bondy와 Frost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자폐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PECS를 사용한 임상 연구보고서가 2001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장혜성, 2001c), 그 보고서는 1999년도부터 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무발화 자폐아동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으로 어린이집 일과중에 PECS 방법을 지도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 놀이종류, 화장실 가기 욕구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PECS 지도단계

1단계: 교환개념 지도

2단계: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 ① 아동이 의사소통판에서 그림카드를 떼어서 교사에게 주게 한다.
- ② 교사와 아동 사이의 거리를 늘린다.
- ③ 아동과 그림 카드 사이의 거리를 늘린다.

3단계: 그림 식별하기

4단계: 문장으로 표현하기

(3) 문헌에 나타난 PECS의 효과

- 의사소통능력의 발달
- 언어표현력의 발달
- 문제행동의 감소

2.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Plan: IEP)

(1) 정의

- 각 아동들이 지니는 개인차와 장애로 인한 발달상의 개인차로 인해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대상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해,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개별화란 교사와 아동이 일대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이 각 아동에게 맞추어서 작성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2004).

(2)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기능

- 교사에게는 자신의 교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완수하는 측면에서 기능한다.
- 발달에 적합한 교수를 통해 교육 대상인 유아에게는 학습과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통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그 장점을 가진다.

☞ 통합 아동이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고 또래와 함께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발달에 적합한 환경은 교재, 또래,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실의 환경구성은 방의 모든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 아동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도 그들의 일과 또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3.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Plan: IEP) 교육진단도구

(1)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

포테이지 관찰표는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Portage Guide to Early Education)"에 포함되어있는데, 장애아의 조기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교사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아동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6개의 발달영역으로 나뉘어져 발달적인 접근으로 수록되어있고 부모가 가정이라는 자연적 환경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찰에 의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특정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지침서와 지침카드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부모가 일정 기간 가르치고 기록하여 교사와 같이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가정 방문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관찰에 의해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특정 행동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서이다. 각 아동의 욕구에 적합하게 순서, 방법, 목표를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별적 교육이 요구된다. 장애 아동교육에 있어 발달적 접근이 쉽고 기능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지침서는 0~6세에 걸친 전 발달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아 자극, 신변 처리, 운동성, 사회성, 인지, 언어 등 서로 연관성을 지닌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연령 수준을 12개월 간격으로 나타낸 포테이지에서는 평가 때 아동의 생활연령보다 보통 1세 아래 연령 수준부터 시작하며 발달이 지체된 영역은 생활연령보다 2세 아래에서 시작한다, 시발점에서부터 10~15개 항목을 수행 가능해야 하며 이렇게 수행되지 못하면 10항목 정도 시발점 뒤로 가서 시작을 하거나 10~15개의 열거된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또한 10~15개의 항목의 수행이 불가능하면 평가를 그만 실시한다.

(2) 캐롤라이나 교육과정(CCPSN)이란 ?

장애유아를 위한 캐롤라이나 교육과정(The Carolina Curriculum for Preschoolers with Special Needs: CCPSN)은 5개의 발달영역(인지, 의사소통, 사회적응, 소근육운동,대근육운동)등을 가르치는 여러 개의 단계로 다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상아동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평균나이에 의해 단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의해서 단계를 결정하였다. 이는 24개월 이상의 장애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일상생활 속에 교육활동들을 통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CCPSN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지혜롭고 창의적인 교사가 일련의 항목들을 이해하고, 어떤 특정 장애 아동에게 적합하게 항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기술되어 있어, 교사들이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를 계획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CCPSN의 영역들과 단계들

영역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적응	소근육 운동	대근육운동
단계	주의집중과 기억개념/ 상징적놀이/ 추론/시지각	표현어휘/ 소리와 언어기능에 대한 흥미/ 수용기술들/대화기술/ 자조기술	책임감/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 자조기술(4)	소근육운동기술들 (4단계)/ 시각-운동기술 (3단계)	움직이기(5) 계단(2)/ 뛰기(3)/ 균형잡기(2)공(2)/ 실외기구

4. 긍정적 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도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이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여 방법(중재)을 계획, 실행, 아동을 "고쳐"보고자 한다.

긍정적인 행동지원이란 1980년대 전통적인 행동관리 실재를 지향하고 인간-중심의 가치에 근거하는 행동중재를 지향하는 운동으로써 출발한 것으로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뿐 아니라, 그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학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별화 전략을 말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의 지도를 통해 학생이 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교육적 측면과, 그 학생이 속한 다양한 환경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체제개선 측면이 동시에 포함된다(Carr et al., 2002; Turnbull et al., 2002).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행동문제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고정된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가 아니라(are not a quick fix or a set of rules and procedures)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위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관계와 참여의 발달이라는 목적은 두는 것이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성인-학생의 관계, 존경의 분위기"내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구체화된 행동 변화 전략도 거의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PBS는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위에 일상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관계와 참여의 발달이라는 1차목적을 두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어른-아이의 관계, 서로 존중의 분위기”에서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체제개선 까지 그 목적과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II. 주민제안사업 설명자료

제안자명	함께 크는 우리		
사업명	열려라 마음! 함께 크는 우리		
사업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0원	0원	0원
사업기간	2014. 07. 04 . ~ 2014. 11. 30.		
사업지역	동	구의동, 중곡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서울시 광진구
사업대상	아차산 자락에 사는 장애아동과 부모들, 장애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사는 주민들		
사업목적 (1~2줄 요약)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마을의 장애아와 비장애아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장을 확장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		
사업내용 (5줄 이내 요약)	반편견 교육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장애 이해 강좌,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 대상 교육 함께 크는 사랑방 : 비장애인 자녀의 부모와 장애인 자녀의 부모가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 장애 유무를 초월한 육아 공동체 형성 반편견 인형극 : 인형극 공연을 통한 반편견 및 장애이해 교육, 반편견 교육이 필요한 지역의 공간에서 공연		

◆ 반편견 인형극 『내 귀는 짹짹이』 공연 기록(2014.9.27~12.3)



첫 공연_서울동의초등학교



2회 공연_신파랑새 어린이집

3회 공연_작은도서관 ‘놀자’에서

- ▶ “열려라 마음, 함께 크는 우리” 열린-조합원 교육의 사전 마당으로 인형극을 선보임(2014.9.27)
- ▶ 가정어린이집 20명 남짓 아이들의 첫 인형극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2014.10.24)

▶ 마을도서관 ‘놀자’ 개관을 축하하는 문화 공연 중 하나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과 만남 (2014.10.25)

▶... 이 후, 나섬어린이집(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안 어린이집) 포함 총 7회차 공연을 함.

... “우리 사는 세상, 편견없이 함께 하기”강연과 더불어 광진구 주민제안사업안에서 통합교육 실천 사례가 되었으며 부모참여, 재능기부 등 관심과 참여의 과정으로 진행됨.

◆ 긍정적 행동지원

“만약 유아가 읽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친다.

만약 유아가 수영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친다.

만약 유아가 숫자를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친다.

만약 유아가 운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친다.

만약 유아가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_____ 가르치는가? _____ 벌을 주는가?

왜 우리는 마지막 문장의 답을 다른 문장과 같은 식으로 답을 하지 못할까?

▪ 언어가 주는 거부감

규정...

편견...

'문제행동'보다 '**도전행동**' (Challenging behavior)이 더 적절함.

▪ 도전행동에 대한 몇가지 기본 가정들

☞ 문제행동은 대체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

- 나는 지루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관심이 필요하다.

- 유아(아동)는 그들이 좀 더 적절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또는 의사소통 기술들을 갖지 못할 때 종종 문제 행동을 사용한다.

- 시간을 넘겨 지속되는 행동은 대체로 유아(아동)에게 잘 되어지는 행동이다.

- 우리는 유아(아동)가 문제 행동 대신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교사의 도움을 구하기

- 친절하게 요청하기

- 무시하기

- 놀이하기

- “이제 그만해 줄래”라고 말하기

- “...좀 해줄래”라고 말하기

- 나누어 쓰기 (공유하기)

- 놀잇감과 물건을 바꾸어 쓰기

- 기다리고 차례가 되면 하기